

# SK, 2005년 수익성 “양호한 수준”

블룸버그, 순이익 1조5000억원 수준 ... 4/4분기는 51% 줄어 악화

SK가 2005년 4/4분기에 최근 2년간 가장 낮은 분기 수익을 기록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통신이 8명의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의 2005년 4/4분기 순이익은 2005년 3/4분기에 비해 51% 줄어든 2961억원으로 집계됐다.

애널리스트들은 2005년 전체 순이익도 2004년에 비해 8% 줄어든 1조5000억원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SK의 영업실적을 좌우하는 석유정제 마진 감소 때문이다.

CJ투자증권에 따르면, 12월 아시아 시장의 석유정제 마진은 배럴당 2달러로 9월 7.26달러에 비해 대폭 줄어들었다.

국제 에너지기구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하루 평균 석유소비량은 따뜻한 날씨로 인해 10월 대비 25만배럴 감소했다.

허리케인 Katrina와 Rita로 석유수급에 차질이 생겨 정제마진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됐으나 예상보다 따뜻한 날씨가 지속된 데다 아시아 국가들이 비축분을 방출하면서 석유수요가 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SK의 2006년과 2007년 영업실적 모멘텀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2006년 예상 순이익은 2005년에 비해 12% 줄어든 1조3000억원으로 예상됐고 2007년 역시 2005년 대비 1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SK는 1월24일 2005년 영업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6/01/24>